주장하여 魔女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그러한 公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근히 그 재판을 부추겼다.[15]

Cotton Mather (1663~1728)* 목사는 다재다능하고 또 多産的이어서 논문, 정치우화, 설교, 비극, 전기, 역사, 전투기록, 일기 등 각 방면에 걸친 저서와 팸플렛을 약 5백편 냈으며, 그 중에서 대표작은 「미국에서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업적」(*Magnalia Christi Americana*, 1702) 일명 「뉴잉글런드 교회사」(*Ecclesiastical History of New England*)이다. 이것은 그가 서문에서, "The reader will doubtless desire to know what it was that...drove men eminent in piety to endure so many calamities and to undertake so many hardships." (Virgil, *Aeneid*, I, 9-11)라고 쓴 것처럼 청교도의 업적을 기리는 목적도 있었다. 그는 이 책에 William Bradford, John Winthrop을 비롯하여 역대의 총독과 주요한 목사들의 전기, 하버드 대학의 역사와 졸업생의 행적, 교회의 신앙과 조직, 神意(Providence)가 역력히 나타난 사례, 異教徒와의 투쟁, 先住民 인디언 이야기 등을 담아, 후세 사람들이 당시의 사회와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지식의 寶庫를 남겼다.

Mather家의 三代째 청교도인 그는 역사가로서 그리고 설교가로서 과거를 돌아보고 식민지 창건자들의 방식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과학에도 관심이 적지 않아서 Newton을 환영하고 種痘를 장려했으며, 또 「뉴잉글런드 교회사」에서 보여준 古風의 衒學的인 文體로부터 새롭고 口語的인 文體로 전환할 수 있었던 散文의 대가이기도 했다. 그는 Franklin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계몽시대(Age of Enlightenment)를 내다보는 전환기의 역사적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가 Benjamin Franklin에게 영향을 준 「善行論」(*Bonifacius*, 또는 *Essays to Do Good*, 1710)에서 "If any children in the neighborhood are under no education, don't allow 'em to continue so. Let care be taken that they may be better educated, and be taught to read, and be taught their catechism and the truths and ways of their only savior."[16]라고 한 말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神과의 계약이나 어려운 神學 대신에 慈善과 순박한 믿음과 일상생활의 종교적인 규제에 의해서 New England의 청교주의의 방향을 새로 조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영국이나 독일에서 개신교(Protestantism)가 정치혁명의 개념을 포기하고 있음을 보고 New England의 神權政治의 앞날이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을 感知하지 않을 수 없었다. 神權政治의 열렬한 옹호자였던 그가 만년에 와서는 그의 일기에 "I saw, to my sorrow, that there was hardly any but my Father, and myself, to appear with any Strength of Argument, or Fortitude, in Defence of our invaded

15) Miller, *The American Puritans*, p. 215.

* Miller의 말을 빌리면, "To modern taste, Cotton Mather repeatedly embodies the more unlovely aspects of the Puritan character; however, he is a highly complex being, sometimes heroic, and not be summed up in a formula."

16) From Cotton Mather, *Bonifacius*, Miller, ed., *The American Puritans*, p. 218.

Churches." (W.C. Ford, ed., *Diary of Cotton Mather*, Vol. I, p. 358)라고 비탄할 정도가 되었다. 하기야 Bradford는 이미 1632년 경에 *Of Plymouth Plantation*에서 식민지가 번창해짐에 따라 주민들을 청교주의 일색으로 단합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했었다.

그것은 곧 청교도 사회의 世俗化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Samuel Sewall (1652~1730)의 *Diary*(日記)이다. 그것은 1673년에서 1729년까지 쓴 것이다. 1660년의 王政復古 후 영국에 눌러 살기가 두려워 Boston에 이주해 온 청교도 양친의 아들로서, 9세때부터 줄곧 이곳에서 살았고 하버드대학을 나온 뒤 인쇄소, 법정 등에서 일했고, 사업에 종사하여 巨富를 쌓았다. 그는 代議員으로 33년간이나 일했고 치안판사를 거쳐 Massachusetts州 재판소장직에까지 올라갔다. 그는 Salem의 마녀 재판에 직접 가담했었으나, 후년에 그의 일기에서 미신적인 주위 사람들의 압력에 못이겨 무고한 사람들을 고발, 처형케 한데 대한 과오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의 일기는 그자신 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반영해주고 있어 흥미롭다. 새로 이주해 오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1690년의 Boston 인구는 약 7천명으로 추정된다.) 편협하고 금욕적인 청교주의는 그들 전체를 포용할 수 없어 몰락할 운명에 처해 있었는 데, 이처럼 世俗化(secularization)해 가는 사회와 그런 사회에서 활약하기 알맞는 실제적인(practical) 특성을 가진 이른바 "Yankee"세대가 형성되었다. Sewall 자신이 전형적인 New England Yankee이어서 돈의 중요성을 알고 셈도 빠르지만 정직하게 벌기를 원했고 명예욕이 강하지만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책임감도 있음이 이 일기를 통해 나타난다. 또한 그의 도덕의식은 그가 최초로 흑인노예제도를 반대한 책자 *Selling of Joseph* (1700)을 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의 일기엔 "I essay'd to prevent Indians and Negroes being rated with horses and hogs; but could not prevail." (1716년 6월 22일)[17]이라고 쓴 대목도 있어 인디언과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전형적인 양키는 돈과 명예를 존중하면서도 청교도적인 罪意識 역시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예컨대 몸져 누워있는 부인의 회복을 위해 Dr. Cotton Mather에게 청하여 기도를 올리게 하는가 하면, Winthrop미망인에게 애정을 느낀다고 적고는 "but I think God directs me in his Providence to desist."[18]라고 덧붙였고, 그후 그의 부인이 죽자 그것을 그 자신이 진 죄에 대한 神의 섭리로 보고 "this very Extraordinary awful Dispensation"[19]에 대한 심한 自責感을 느낀다. 日記 도처에서 神을 찾고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神意와 결부시키고 있는 것은 청교도적인 소양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락적인 생활에 대한 욕망, 주변인물들의 신앙심의 약함, 인도주의에 대한 관심 등이 일기 속에 자

17) "*The Diary of Samuel Sewall*," Sculley Bradley *et al.*, ed., *The American Tradition in Literature*, 4th edition, Vol. 1 (New York: Grosset & Dunlap, 1974), p. 49.

18) *Ibid.*, p. 54.

19) *Ibid.*, p. 56.

주나와 18세기의 世俗主義의 대두가 명백해지고 있다.

원래 청교도의 日記는 그들의 自敍傳처럼 神앞에서의 自己省察을 그 특징으로 했다. 그것은 종교적 동기에 있어서 그들이 쓴 역사나 전기와 마찬가지였다. 즉 역사는 식민지에 있어서의 神의 섭리를 조명해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傳記는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의 神의 섭리를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crease Mather가 쓴 그의 부친의 전기 *The Life and Death of That Reverend Man of God, Mr. Richard Mather* (1670)는 청교도 傳記의 걸작이고 Cotton Mather도 그의 부친 Increase의 전기를 썼고 또 그의 *Magnalia*에는 앞서 본 것처럼 다량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또 장례식 때의 설교(Funeral Sermon)에도 전기문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비록 무명인이라 할지라도 그 故人의 생애의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볼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교도들의 자서전으로서는 "In Adam's fall we sinned all."이라는 原罪論을 열심히 설교한 Thomas Shepard (1605~49) 목사의 *The Autobiography of Thomas Shepard* (1832 출판)가 두드러진다. 이것은 그가 일생 동안 神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神에게 감사하는 동시에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는 청교주의를 위해서는 humanity도 상식도 고려의 여지가 없다는 외골수의 청교도였다.

John Winthrop의 *Journal* (나중에 *The History of New England*라는 제목으로 일부는 1790년에, 완본은 1825~6년에 출간)은 Bradford의 *Of Plymouth Plantation*과 더불어 초대 청교도가 남긴 역사문학의 쌍벽이지만, 그후에도 Edward Johnson (1598~1672)의 *The Wonder-Working Providence of Sions Saviour's in New England* (1654)라는 제목의 25年史, William Hubbard (c. 1621~1704) 목사의 *A General History of New England from the Discovery to 1680* (1815 출판)라는 50年史가 있고 또 상술한 Cotton Mather가 쓴 New England의 教會史를 포함한 여러 권의 역사가 있는데 이 청교도의 역사 책들은 모두 公的인 자기분석인데 반하여 그들의 日記는 본래의 동기가 개인의 자기분석이며, 구원을 얻기 위한 自己省察이었으나 Sewall은 日記에 세속적인 요소를 다분히 넣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미국의 Pepys」*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어쨌든 청교도의 자기성찰의 일기의 전통에서 Emerson과 Thoreau의 방대한 日誌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장례식 때의 설교 중에 전기문학에 들만한 것들도 있다고 했지만 일상적인 설교는 일요일 예배설교 외에 목요일에도 강의일(Lecture Day)이라고 하여 설교를 했다. 두 시간에 걸친 긴 설교도 많았고 회중은 설교를 필기하는 습관이 있었다. 문화도시 Boston엔 1639년에 인쇄소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설교들이 팸플렛으로 인쇄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그 설교(문)는 무엇보다도 청중이나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 Samuel Pepys[pi:ps] (1633~1703)는 1660년대 영국의 세태와 私生活을 노골적으로 기록한 일기문학의 세계적인 고전을 집필한 바 있다.

平明體(simple and plain style)가 사용되었다. 복잡한 修辭語의 구사, 라틴語나 그리스語의 인용 등은 오히려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나깨나 구구절절 金科玉條로 의지하고 사는 성서야 말로 그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용어와 이미저리와 기법에 있어서 가장 적당한 본보기가 되었다.

> Inevitably, then, when he preached or wrote on divine themes he tended to limit his diction, his images, and his literary devices to those which he could find in Holy Writ. In subject matter too, obviously what was closest to the Bible was best. Biblical style was perfect because it was "penned by the Holy Ghost." It was a style of "great simplicitie and wonderful plainnesse," "unpolished," avoiding "the flowers of Rhetoricke," "the goodly ornaments of humane eloquence," and "wittie sharpe conceits."[20]

설교의 문체가 엄숙한 平明體일 뿐만 아니라 설교의 전개 역시 일정한 양식에 따랐다. 즉 우선 聖句를 인용하고 나서 敎旨(Doctrine)의 제시, 이유(Reasons) 설명, 그리고 실천법(Uses) 지시가 그것이었다. Cotton Mather의 설교와, 그보다 웅변가였고 「교회기율요약개관」(*A Survey of the Summe of Church Discipline*, 1648)의 저자인 Thomas Hooker (1586~1647)의 설교는 그 본보기들이었다. Hooker는 영국국교회에 불복하다 쫓겨나 Holland를 거쳐 1633년에 Cotton Mather와 같은 배로 Boston에 온 청교도로서 Newton (후의 Cambridge)의 목사로 있다가 Cotton Mather의 theocracy의 전횡(autocracy)에 반대하여 Roger Williams가 Massachusetts로부터 그의 회중을 이끌고 Rhode Island에 가서 식민지를 만들었듯이 그도 거의 동시에 그의 회중을 이끌고 Connecticut Valley에 가서 Hartford에 식민지를 만들고 자치기구를 설립하였다. 그 헌법에서 民意에 의해 형성된 정부가 모든 사람의 선거권 행사에 의해서 대다수가 원하는대로 봉사한다는 것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史家들은 Hartford를 미국 민주주의 탄생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민주적 경향의 조합교회주의(Congregationalism)에 대한 청교주의적 영국 장로교도들(Presbyterians)의 공격을 물리쳐 New England조합교회의 아버지로 일러졌다. 이것 역시 웅변적이고 知的인 그의 설교에 힘입은 바 크다. 이렇듯 설교는 청교도 사회에서 일종의 대중문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에 목사들의 설교는 풍성했으나 체계적인 神學저서는 별로 없었고 그것은 18세기의 Jonathan Edwards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들은 보다 구체적인 교회론과 역사적 서술, 종교적 명상(meditations) 등을 발표했고 청교도 사이의 신학논쟁 내지 공개토론도 활발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John Cotton (1584~1652)과 앞에 언급한 Roger Williams와의 논쟁이며 그들의 논쟁은 런던에서 출판되었다. Williams는 神權政治에 반대하여 政敎分離를 주장하여 *The Bloody Tenent of Persecution* (1644)를 내자 이에 대해 Cotton의 反論(1647)이 나오자 이에 응수하여 다시 *The Bloody Tenent yet More Bloody* (1652)에서 상

20) Murdock, *Literature & Theology in Colonial New England*, p. 43.

대방을 논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재강조하였다.

17세기 말까지엔 New England식민지의 성격은 완연히 변모하기 시작하였고, 일찌기 Winthrop이 성서를 인용하여 이른바 청교도의 "Citty upon a Hill"로 만들었던 Boston이 이제는 그 자체의 경제·정치 체제와 독특한 정치이론과 세속적인 문학전통의 붕아가 싹틈으로써 새 국가의 핵심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청교주의의 쇠퇴는 점차적이었지만 1717년의 John Wise (1652~1725)의 「뉴잉글런드교회 정치옹호」(*Vindication of the Government of New England Churches*, 1717)의 발표는 종교적인 지배의 종식이 시작되고 이를 대치할 민주주의 이론이 대두했음을 고하는 것이었다. 영국 철학가 John Locke을 통해 식민지에 들어온 정치사상은 인간은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천부의 권리가 있는 것이며 정부를 구성하고 위정자를 뽑는 것은 그의 권리를 갖다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권리를 보호하는 권력을 정부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기원은 神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이며 神權說은 Locke의 契約說에 의해 대치되었다. 후년에 미국의 독립전쟁을 일으킨 애국자들은 인간이 형성한 정부는 인간이 해체시킬 수도 있다면서 혁명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계약설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인데 그들보다 앞서 18세기 초에 그 개념을 교회정치에 적용시킨 것이 John Wise였다. 그는 「교회 논쟁 지지」(*The Churches' Quarrel Espoused*, 1710)와 상기한 *Vindication*에서 Mather 父子가 청교도 교회를 소수독재(oligarchic system)에 위임하지 않도록 주장했으며, 특히 후자에서 교회와 국가 양자의 합리적인 통치체제가 민주주의임을 역설했다. "The end of all good Government is to Cultivate Humainty, and Promote the happiness of all, and the good of every Man in all his Rights, his Life, Liberty, Estate, Honour &c. without injury or abuse done to any."라고 주장한 그의 말은 1776년의 「미국독립선언문」(the Declaration of American Independence)에 표현된 정치사상을 앞지른 것이다.

이상, 식민지 초기에서 1730년경까지의 미국문학 배경과 더불어 주요한 散文作家와 作品을 살펴보았지만 同期間의 詩분야에서는 어떤 anthology를 보나 마찬가지로 세 시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dward Taylor가 단연 상위이고 여류시인 Anne Bradstreet가 다음이고 Michael Wigglesworth는 한층 떨어지는 시인으로 평가된다.

散文을 보아 짐작할 수 있듯이 New England의 풍토에서 詩 역시 청교도 냄새를 물씬 풍겼다. 詩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英本國의 Philip Sidney, Edmund Spenser, Francis Quarles, George Herbert 등의 종교시를 읽었으며 속세를 노래한 시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形而上派였으며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시하고 美보다 敎化가 목적이었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 聖歌集 *The Bay Psalm Book* (1640)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Richard Mather, Thomas Welde, John Eliot 등의 청교도가 헤브라이語 聖詩(psalms)를 찬송가(hymns)體로 英譯한 것으로서 식민지에서 인쇄발행되어 나온 최초의 단

행본이다. 拙詩의 표본들이지만 책이 희소한 17세기 식민지에서 집집마다 갖고 있던 이 책은 어려서부터 찬송 부를 때마다 되풀이 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Shakespeare의 이름은 몰라도 이 책에 든 찬송가들은 눈을 감고도 외웠다. Psalm 23의 예를 든다.

The Lord to me a shepherd is,
want therefore shall not I.
He in the folds of tender grass
doth cause me down to lie.
To waters calm me gently leads,
Restore my soul doth he:
He doth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lead me.
Yea, though in valley of death's shade
I walk, none ill I'll fear:
because Thou art with me. Thy rod
and staff my comfort are.
For me a table Thou hast spread
in presence of my foes....

New England 식민지에서 自生하고 육성된 이 찬송가들은 이 땅에 종교적이나마 作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숨은 역할을 했음이 틀림없다. 詩가 장려되는 풍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몰래 詩를 즐기고 또 詩를 쓴 사람들 가운데 여류시인 Anne Bradstreet (1612~72)가 있다. Massachusetts Bay 식민지의 제 2 대 총독의 딸이고, 그녀의 死後에 자기 남편도 총독이 된, 高官의 婦人이었고 여덟 자녀를 키운 "frontier woman"이었으나 틈틈이 영국의 形而上詩人을 모방하여 쓴 詩가 상당한 부피에 이르자, 그녀의 친척이 그녀를 찬양하는 뜻을 지닌 제목을 부쳐 London에서 출판한 詩集이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난 열번째 詩人」(*The Tenth Muse Lately Sprung Up in America*, 1650)이다. 形而上詩人을 모방했기 때문에 딱딱한 것이 많으나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놀랄만한 박식을 과시한 것인데 그녀가 이를 改訂增補하여 다시 꾸며 놓은 것이 그녀의 死後에 *Several Poems Compiled with Great Variety of Wit and Learning* (1678)으로 출판되었다. 그 중에서 "Contemplation"(명상)은 아름다운 New England를 노래하여 미국 최초의 불만한 自然詩가 되었다. 자연을 찬양하면서도 "How excellent is He that dwells on high,/Whose power and beauty by his works we know!..."라고 하면서 조물주를 찬양하는 그녀는 자연에서는 겨울이 와서 나무의 푸르름이 사라져도 봄이 되면 다시 소생하여 더 젊어지는 데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노쇠해지고 사멸한다고 개탄하고는 곧 反轉하여 "But man was made for endless immortality."[21]라는 기독교적인 영혼불멸의 믿음으로 돌아간다. "painted"된 것 같으면서도 "true"한 색채를 가

21) Pearce, *Colonial American Writing*, p. 225.

진 New England의 가을의 현란함을 "contemplate"할 때, 그녀는 그것에 자신의 감각이 "rapt"되어 처음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라 했지만 결국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는 오죽 탁월하시겠느냐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I wist not what to wish, yet sure, thought I,
If so much excellence abide below
How excellent is He that dwells on high,
Whose poem and beauty by his works we know.[22]

후년의 William Cullen Bryant의 名詩 "Thanatopsis"(死觀)를 豫示하는 듯한 이 작품을 포함해서 그녀의 거의 모든 詩에는 성서에서 끌어낸 이미저리의 진부한 표현이 많고 그 귀결은 항상 神에게 영광을 돌리는 청교도 정신을 보여준다. 자기 집에 화재가 난 것을 슬퍼하면서도 자기의 財寶는 하늘에 있다는 희망적인 결론을 짓는 "Upon the Burning of Our House"가 그렇고, 또 남편에 대한 애정을 노래하면서도,

"Then while we live, in love let's persevere
That when we live no more, we may live ever."[23]

라고 하여 소박하고 힘차게 그것을 내세에 대한 신앙과 일치시키고 있는 "To My Dear and Loving Husband"도 그러하다.

Anne Bradstreet의 詩가 현세적인 것에 대한 사랑과 내세에 대한 신앙의 긴장관계 위에 성립된다고 한다면, Michael Wigglesworth (1631~1705)의 詩는 내세에 대한 신앙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는 하버드 출신으로 교사경력도 있으며 Massachusetts의 시골목사로서 의사도 겸했었다. "Unlike Mrs. Bradstreet, Wigglesworth was not interested in poetry as poetry or in contemplating nature. He rhymed his dogmas because they were easier to remember that way."[24]라는 評도 있듯이 그의 長詩 *The Day of Doom* (1662)에서도 그는 일반 민중이 이해하기 쉽게 ballad詩形으로 최후의 심판에 관한 성서의 기술을 韻文化하고 영원한 형벌에 관한 Calvinism의 敎義를 추가하여 진정한 성도(saints)의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했다. 이것은 1660년 英本國의 王政復古의 여파로 청교도 식민지가 불안에 싸여 있는 위기에 몸져 누워 교단에 서지 못한 그가 펜으로 설교를 대신하려고 쓴 서사시이다. 지옥의 검주는 무서운 장면을 묘사한, 현세 부정적인 이 詩는 현대인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장래엔 널리 읽혀지고 판을 거듭하는 베스트셀러였다. "Meditations Concerning the Necessity, End and Usefulness of Afflictions into God's Children," "All tending to Prepare

22) *Ibid.*, p. 221.
23) *Ibid.*, p. 232.
24) Hyatt H. Waggoner, *American Poets: From Puritans to the Present*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8), p. 10.

them for and Comfort them under the Cross" (1664) 등의 詩도 그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모두 신앙을 북돋기 위한 것들로서 역시 인기가 높았고 그의 詩는 1세기 동안 *The Bay Psalm Book*의 찬송가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애송되었고, 아이들에겐 教理問答과 더불어 그의 詩句를 외우게 했다고 한다.

미국 최초의 중요한 시인으로 치는 Edward Taylor (c. 1642~1724)는 王政復古 후에 청교도 박해를 피하여 22, 23세때 영국을 떠나 Boston에 와서 Increase Mather의 영접을 받았다. 하버드대학에서 만나 기숙사생활도 같이 한 Sewall과의 交友는 일생동안 계속되었지만 그는 Massachusetts의 변경 Westfield에서 Wigglesworth처럼 목사 겸 의사로서 58년 간이나 조용한 봉사의 생애를 보냈다.

Taylor의 詩의 주제를 Anne Bradstreet와 대비하여 "The subject matter of Taylor's verse is almost exclusively devotional, whereas Bradstreet covers a variety of human concerns, including domestic relationship. Her simple diction and clear syntax contrast sharply with Taylor's elaborate verbal techniques."[25] 라고 한 Aldridge의 말은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다. Taylor는 일상의 경험에 기초를 둔 비근한 metaphor나 이미저리를 사용했는 데 그 점에서는 후기의 Bradstreet와 공통되지만 그래도 Taylor 쪽이 훨씬 더 정교하고 비약적이었다.

Taylor는 생전에 그의 詩를 발표하지 않았고 또 그의 死後에도 공개하지 말도록 유언까지 했었기 때문에 2백년 이상이나 묻혀있다가 Yale대학의 Thomas H. Johnson 교수에 의해 원고가 정리되어 1939년에 그 일부를 추린 *The Poetical Works of Edward Taylor*가 출판되어 햇빛을 보게 되고 그 진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詩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 데, 한 그룹은 "God's Determinations"라는 제목하의 36편의 連作으로, 서정시와 도덕극(morality play) 비슷한 것이 섞여 있다. 인간의 영혼이 神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Satan의 조롱을 물리치고, 성도(saints)의 인도로 천국에 가는 과정을 노래한 이 連作의 主題는 Wigglesworth의 詩와 마찬가지로 청교도의 教義를 韻文化한 것이지만 묘사가 더 생기있고 작품으로서도 뛰어나다. 특히 마지막 7편은 神의 구원에 환희하여 그 영광을 찬양하는 감동적인 서정시로 되어 있다. 또 하나의 그룹은 "Sacramental Meditations"로 불리우는 217편의 連作으로서 그것은 다년간 그가 聖餐式을 거행하기 전날 그 준비로서 행한 명상을 詩로 쓴 것들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설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내용도 개인적인 감동을 기초로 하고 있다. 詩形은 모두 弱强 6步格(iambic hexameter)의 6행의 節(stanza)로 통일하고 그 틀 안에서 신앙의 환희를 분출시키고 있다. 이 두 그룹 외에 10편 가량의 독립된 서정시가 있다. Taylor는 청교도가 한결같이 우울하고 근엄하다는 정설을 깨고 신앙생활의 환희를 읊은 것이 특징이다. Taylor가 그리는 성도는 John

25) A. Owen Aldridge, *Early American Literature: A Comparative Approach*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p. 53.

Bunyan의 무거운 걸음의 순례자와는 대조적으로 마차를 타고 노래하며 하늘 나라를 향해 달린다. 그의 詩는 흔히 감각적인 이미저리와, 일반적으로 詩語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비속한 용어와 일상적인 사물이 metaphor로서 상당히 자유롭게 구사되는데 예컨대 「家政」 "Huswifery" (Housewifery)라는 독립된 시에선 당시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었던 물레질과 베짜기의 metaphor를 사용하여, 자기가 主의 물레가 되어 솜에서 실을 빼고 主의 베틀이 되어 그것으로 짠 옷감으로 만든 성스러운 옷을 입는 보람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Make me, O Lord, thy Spinning Wheele compleat;
Thy Holy Worde my Distaff make for mee.
Make mine Affections thy Swift Flyers neate,
And make my Soule thy holy Spoole to bee.
My Conversation make to be thy Reele,
And reele the yarn thereon spun of thy Wheele....[26]

또 "The Experience"라는 "Meditation 3"에 해당하는 詩에서 Taylor는 여러가지 악기가 되어 主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낸다.

Oh! that my Heart, thy Golden Harp might bee
Well tun'd by Glorious Grace, that e'ry string
Screw'd to the highest pitch, might unto thee
All Praises wrapt in sweetest Musick bring.
I praise thee, Lord, and better praise thee would,
If what I had, my heart might ever hold.[27]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식민지 초기의 詩들은 그 작품의 우열을 가릴것 없이 한결같이 종교적임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동시대의 散文보다도 그런 면에서 더 통일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Tylor 교수가 그의 초기 미국문학사에서 "And in our record of the literary achievements of New England in the colonial time, the clergy fill by far the largest space, because, in all departments of writing, they did by far the largest amount of work."[28]라고 한 말은 散文뿐만 아니라 詩부문에서도 그대로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렇듯 청교도의 문필가들이 그들의 저작에서 종교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세속적인 또는 순수한 문학을 싫어했다거나 문예창작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Cotton Mather가 젊은 지식인에게 문학에 유혹되지 말라고 충고했다는 에피소드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 자신도 순문학에 마음이 끌리고, 또 그들이 남긴 저작으로 類推해 볼 때, 문

26) Thomas H. Johnson, *ed.*, *The Poetical Works of Edward Taylor* (Princeton University Press 66), p. 116.
27) *Ibid.*, p. 124.
28) Tylor, *A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p. 81.

예창작의 잠재력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의 청교도적인 召命意識과 그 특이한 사회풍토는 그들로 하여금 문예창작보다는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에 눈을 돌리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상기한 소수의 詩人처럼 간혹 문예창작에 상당한 경지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창작을 餘技로 했고 그나마도 그 장르는 宗教詩 일색이었다.

그러고 보니 계몽주의(the Enlightenment)와 자유주의(Liberalism)가 서서히 청교주위를 대치하거 시작하기 이전의 New England의 미국문학에서 청교주의가 얼마나 지배적이고 뿌리깊었는가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므로 Pearse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온 모든 것의 핵심사상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하겠다.

> Their obligation was to search for evidence of His way with them, to live according to the mandates of that way, and ever to study themselves in their world, ever to know their nature as it might manifest their fate. Theology, philosophy, political theory, history, and even the arts—all were to be valued only to the degree that they might be means of searching out that nature and discovering that fate. In its early, great period, Puritan society was held together by a tension of desperate certitude.[29]

Bibliography

Aldridge, A. Owen. *Early American Literature: A Comparative Approach.* Princeton Univ. Press, 1982.

Arbor, E. & Bradley, A. (Eds.), *Travels and Works of Captain John Smith*, 2 vols. Edinburgh, 1910.

Bradford, William. *Of Plymouth Plantation, 1629~1647.* Samuel Eliot Morison. (Ed.), New York, 1952.

Grabo, Norman. "William Bradford: *Of Plymouth Plantation,*" In Henning Cohen, (Ed.), *Landmarks of American Writers.* Voice of America Forum Lectures, USIS, 1970. 58, 61-63.

Johnson, T.H. (Ed.), *The Poetical Works of Edward Taylo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Mead, Robert D. *Colonial American Literature From Wilderness to Independence.*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6.

Miller, Perry. (Ed.), *The American Puritans: Their Prose and Poetry.* New York: Doubleday & Co., 1956.

29) Pearce, *The Continuity of American Poetry*, pp. 18-19.

Murdock, Kenneth B. *Literature & Theology in Colonial New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49.

Parrington, Vernon L. *The Colonial Mind: 1620~1800.*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27.

Pearce, Roy H. (Ed.), *Colonial American Writing.* New York: Rinehart & Co., 1958.

Pearce, Roy H. *The Continuity of American Poet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Spiller, Robert, *et al. Liter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46.

Taylor, Walter F. *A History of American Letters.* New York: American Book Co., 1936.

Tylor, Moses Coit. *A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1607~1783.* Jones, Archie H.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Waggoner, Hyatt H. *American Poets: From Puritans to the Present.*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8.

ABSTRACT

The Overwhelming Impact of Puritanism on Colonial New England Literature

Wang-Rok Chang

Since the colonization of the New World was a product of both Renaissance and Reformation, the two contrasting ideals, Puritanism and liberalism, largely constituted the common life style in New England in its early period. As far as literature is concerned, however, Puritanism was dominant to such a degree that liberalism had only a puny voice. The early colonists lived under theocracy, a Puritan government that imposed Puritanism on the people while discouraging liberal thinking. Thus we find very little trace of the liberal spirit in early New England writing but rather a domination of Puritanism.

Even such an explorer as Captain John Smith did not exclude from his adventurous account his sense of Providence and the need of converting the "savage indian" to Christianity. This exemplifies the "union of spirituals and temporals" which is a "Renaissance obsession." William Bradley was a paramount example of a Puritan writer who described in his *History of Plymouth Plantation* how the earliest colonists overcame thousands of difficulties and dangers confronting them, ascribing their success to the grace of God. He was convinced that they were "God's favored people" erecting a New Jerusalem in the New World. John Winthrop's *Journal* follows the same general line.

Histories, diaries, journals, netebooks, biographies, autobiographies, and sermons provided by Increase Mather, Cotton Mather, Samuel Seawall, and other notable prose writers, as well as poetry written by Edward Taylor, Anne Bradstreet, and Michael Wiggleworth, who represent Puritan poetry at its best, were all impregnated with the same thought patterns, though not without a handful of exceptions. Flashes of liberalism, for example, can be found in Sewall's *Diary*.

As these sporadic flashes of liberalism or secularism were on the speedy rise and were combined with a newly introduced Deism, traces of Puritanism remained and deeply entrenched while theocratic practice ceased entirely. This trend was so pervasive that Jonathan Edwards's efforts to restore the original meaning of Puritanism was unsuccessful.